2023.12.29.

질병관리청

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 대비

올바른 환기수칙 이렇게 실천하세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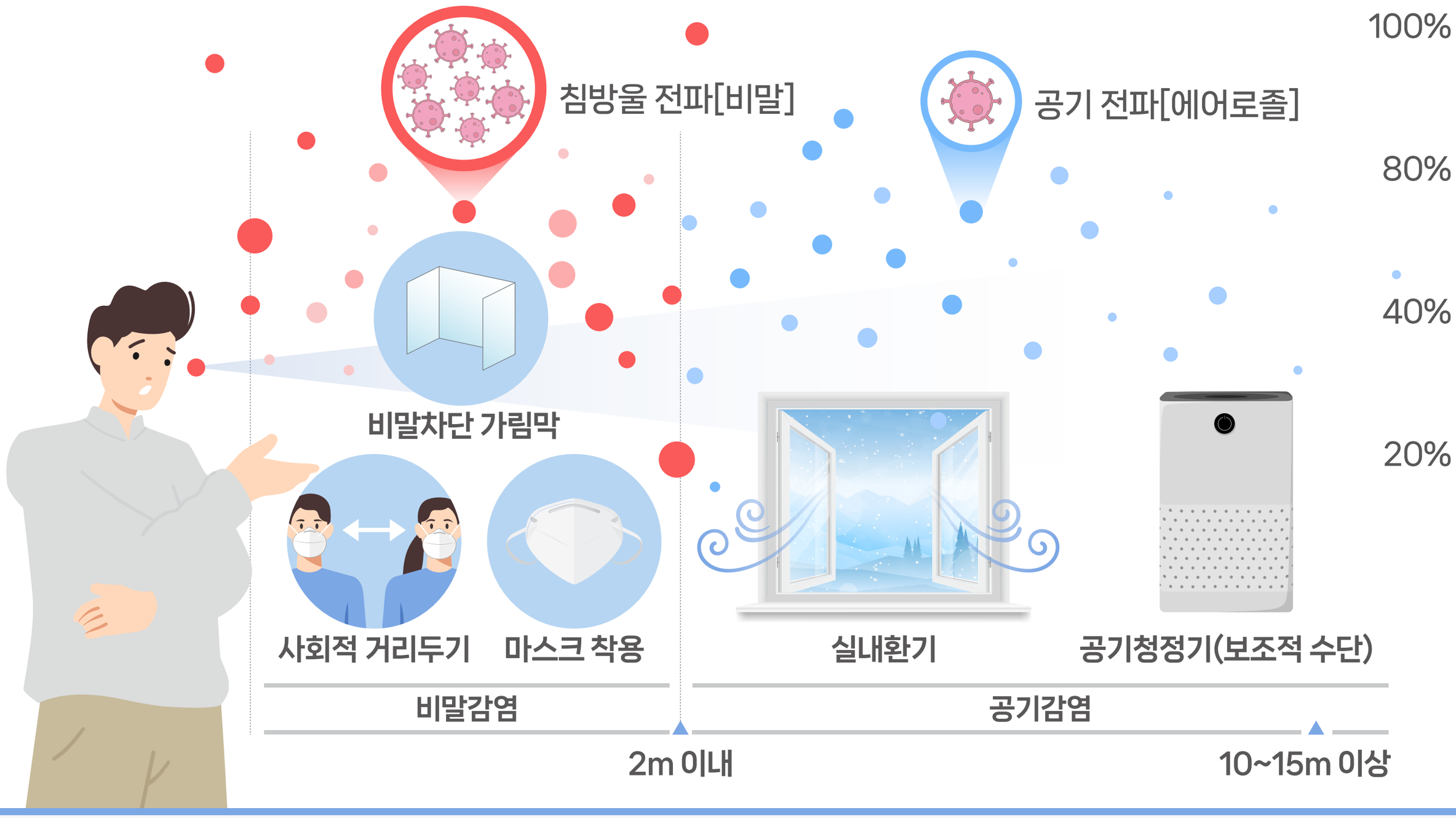
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
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.

2023.12.29.

질병관리청

주기적인 환기의 필요성

입자 크기에 따른 전파 양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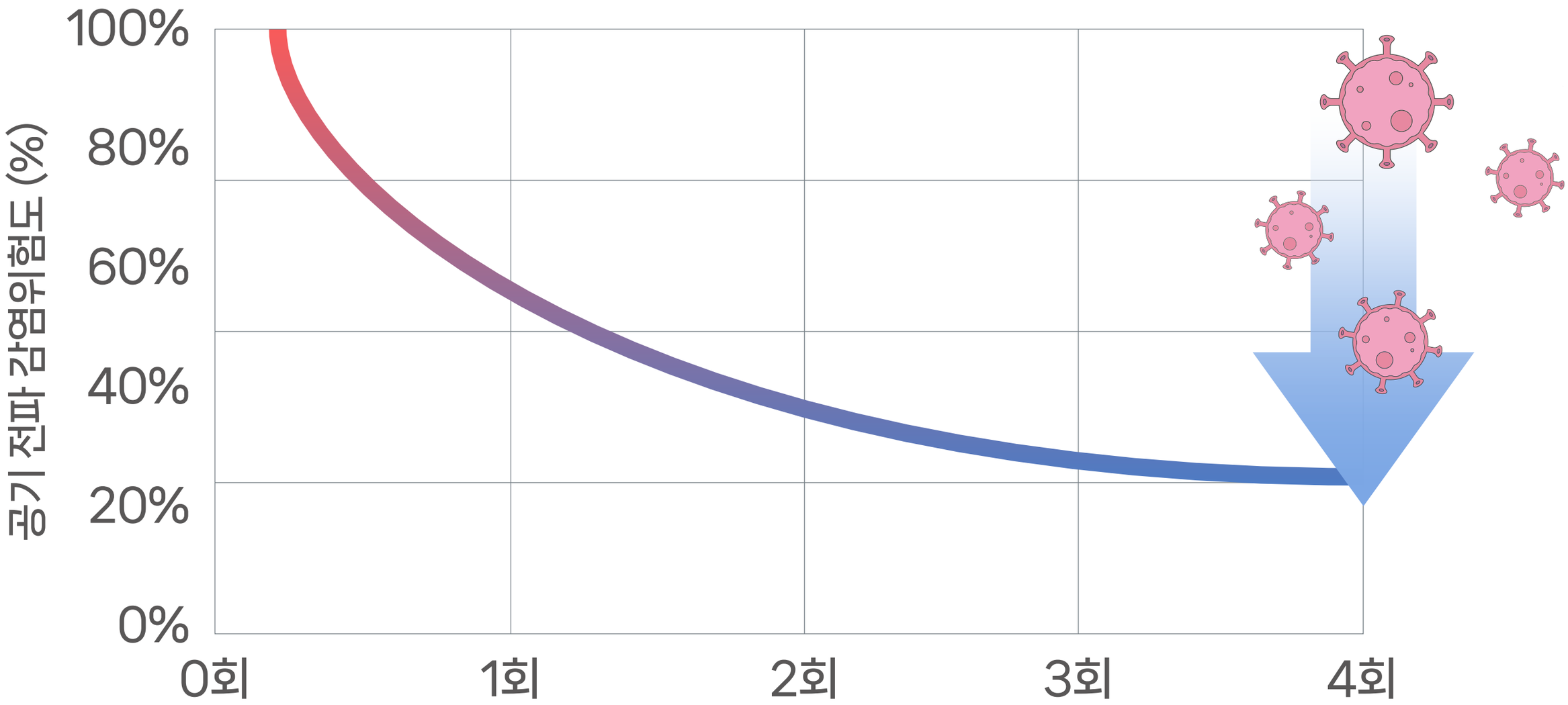
5㎛ 이상의 비말은 대부분 1~2m에서 가라앉으나,
5㎛ 이하의 에어로졸은 공기 중 장시간 떠다니며
10m 이상 전파가 가능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.

2023.12.29.

질병관리청

환기 횟수에 따른 감염위험도 감소 효과

환기에 의한 공기전파 감염위험도 변화



* 시간당 환기횟수(회)는 1시간에 실내 체적만큼 유입·유출되는 환기량

환기량이 많을수록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낮아지며,
10분 내외 환기 시 오염물질 농도와 공기전파 감염위험도가 감소합니다.
(외부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하루 3회 환기 권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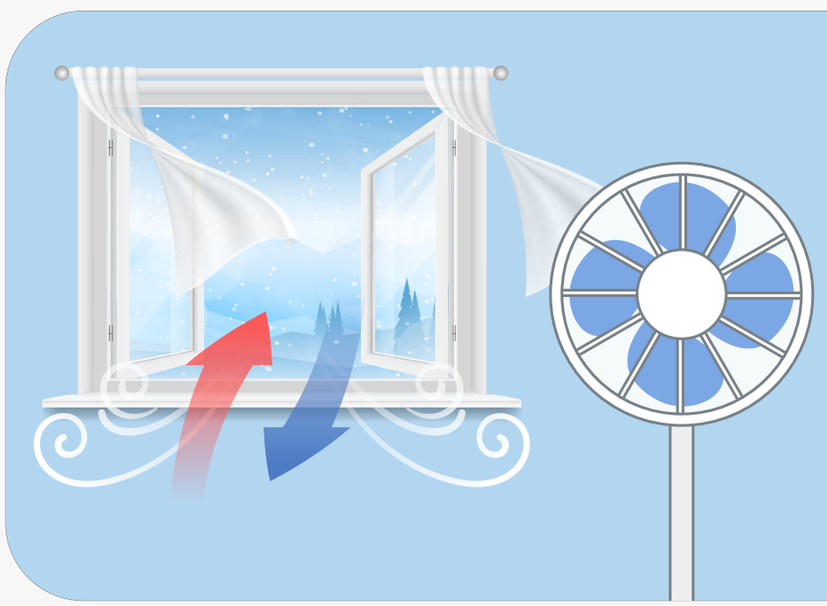
*참고: 호흡기 감염병 공기전파 감염위험도 평가 프로그램(K-VENT)
: 질병관리청 누리집 ➔ 알림자료 ➔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

질병관리청

창문을 활용한 자연환기 방법

- 하루 최소 3회, 매회 10분 이상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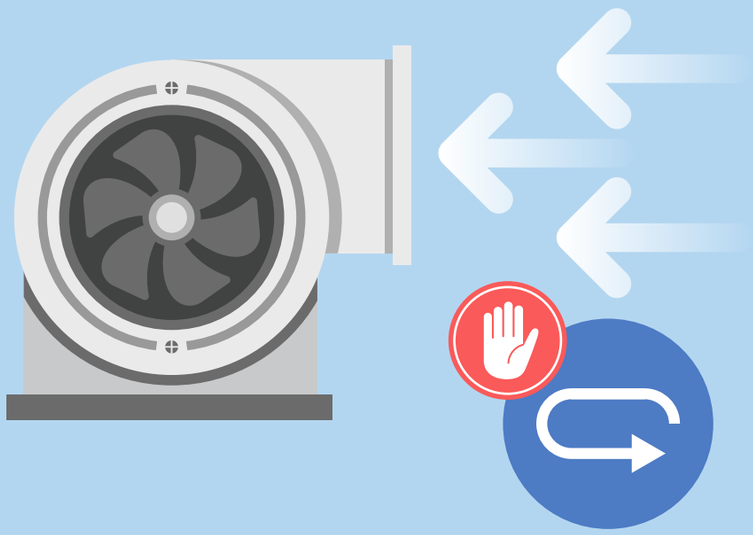
- 냉·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는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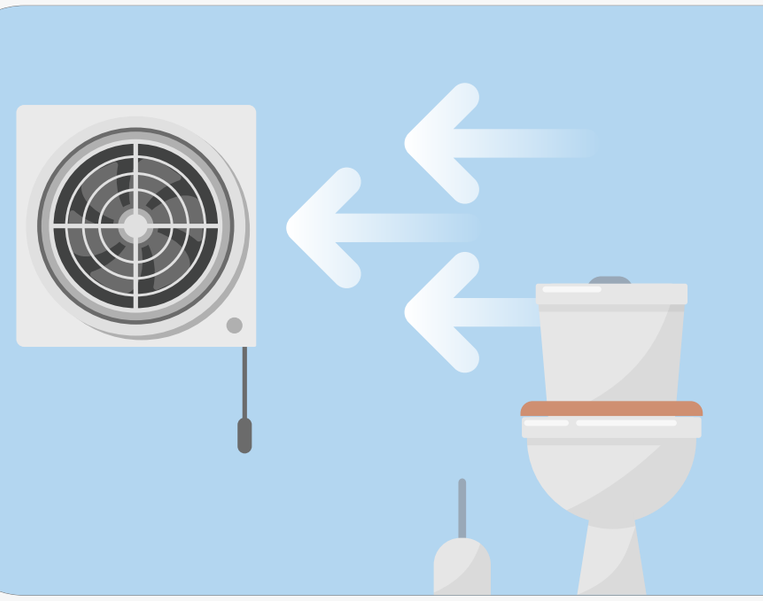
- 선풍기, 환풍기를 동시 활용하면 환기 효과 증가

질병관리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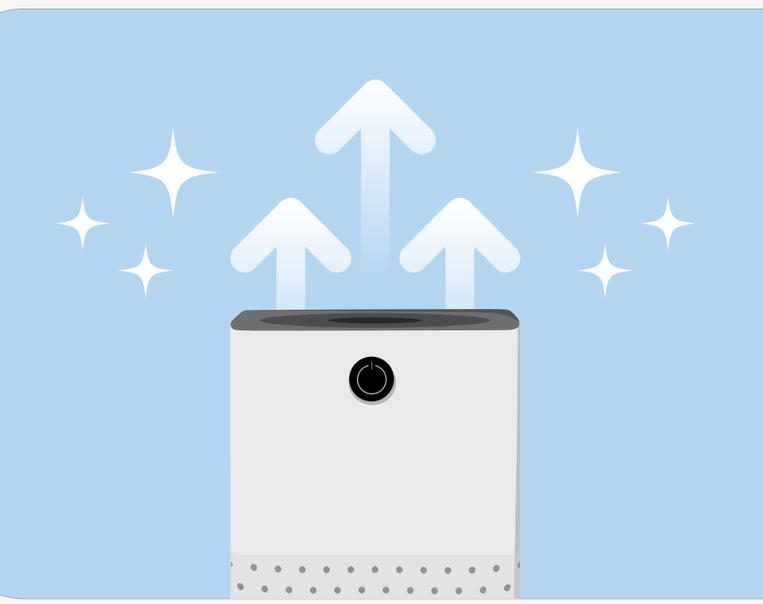
환기장치 등 기계환기 방법



- 외부 공기 유입량을 최대로 설정하고, 내부 순환모드는 자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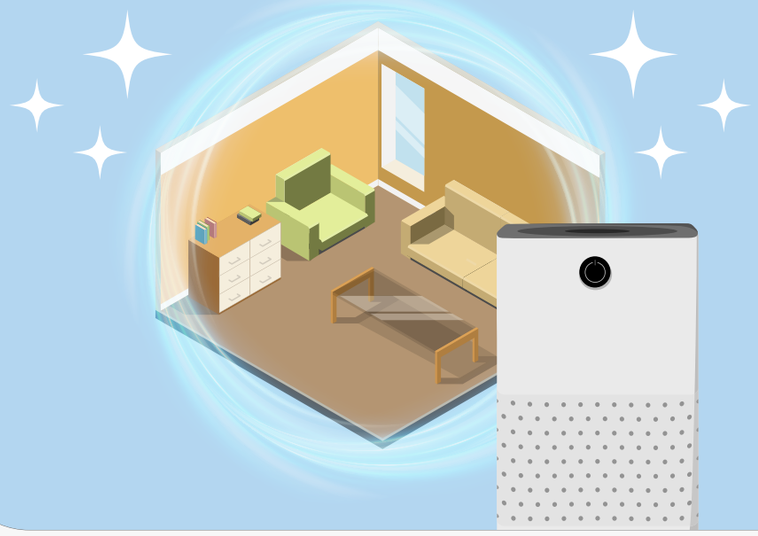
- 건물 내 층간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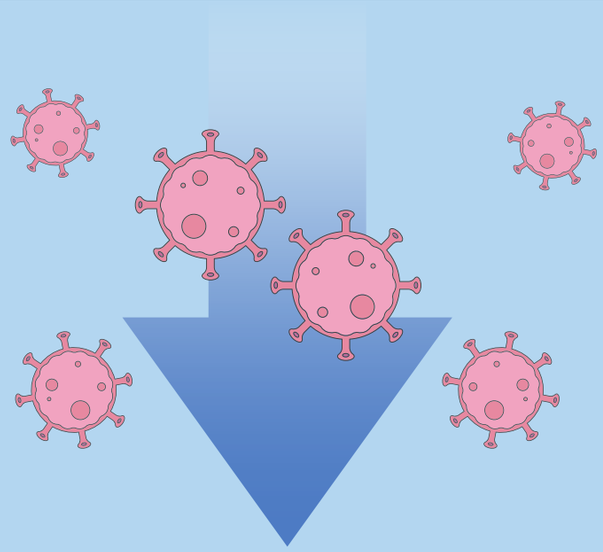
- 공기청정기를 같이 사용하면 오염물질 제거에 보조적인 효과

질병관리청

공기청정기의 사용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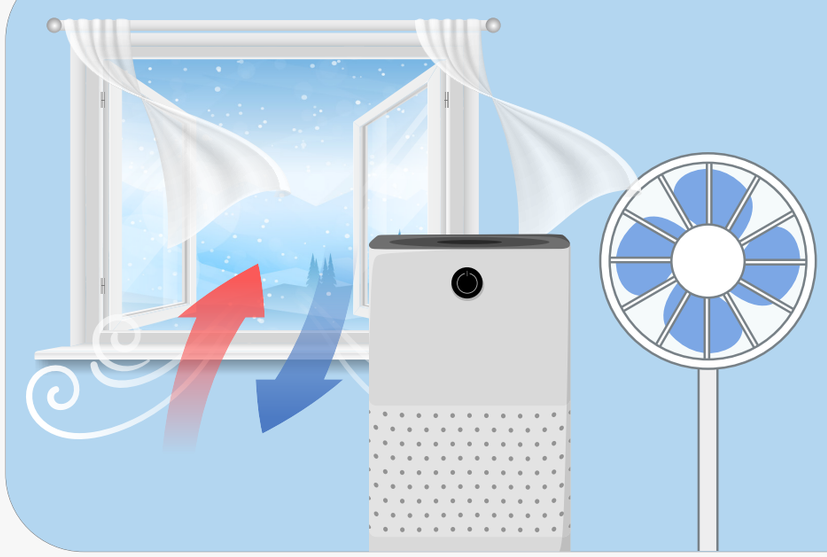


보편적이면서 효과적인 실내 공기 질 개선효과



오염물질이 모두 제거되지는 않지만, 감염원 농도를 현저히 감소

* 공기청정기 약풍 가동 시, 오염물질 제거비율 27%
강풍 가동 시, 오염물질 제거비율 86%로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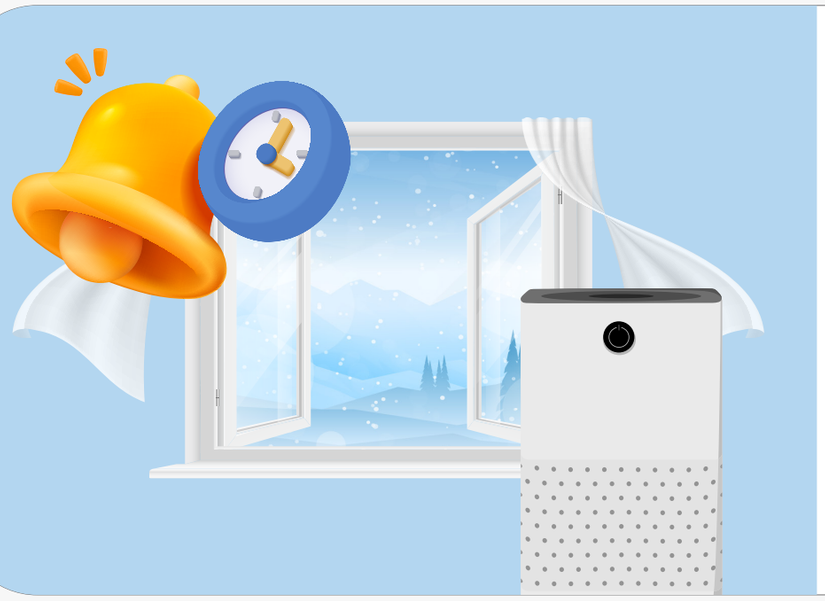


공기청정기는 자연환기, 기계환기와 같이 활용할 때 가장 높은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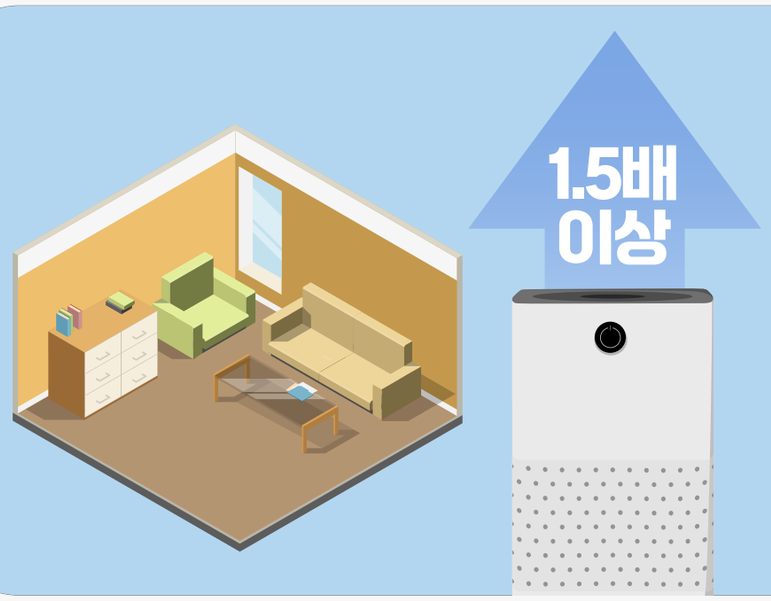
2023.12.29.

질병관리청

공기청정기의 올바른 사용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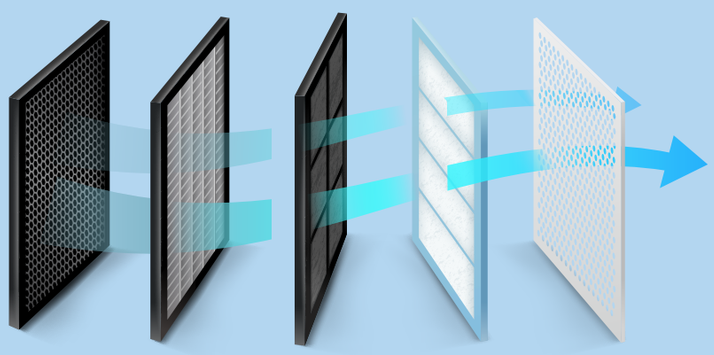


공기청정기가 있더라도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의 환기 필요



제품에 표시된 적용 면적을 확인하여 대상 공간에 맞는 용량의 공기청정기 사용

*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기준용량 대비 1.5배 이상의 용량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



공기청정기 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

* 일반적으로 집진필터(헤파필터)는 6개월~1년 사이에 교체, 제조사의 교체 주기 및 필터 오염상태에 따라 변경

“

겨울철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.

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해 올바른 환기 수칙 실천으로 호흡기 감염병을 함께 예방해요!

”